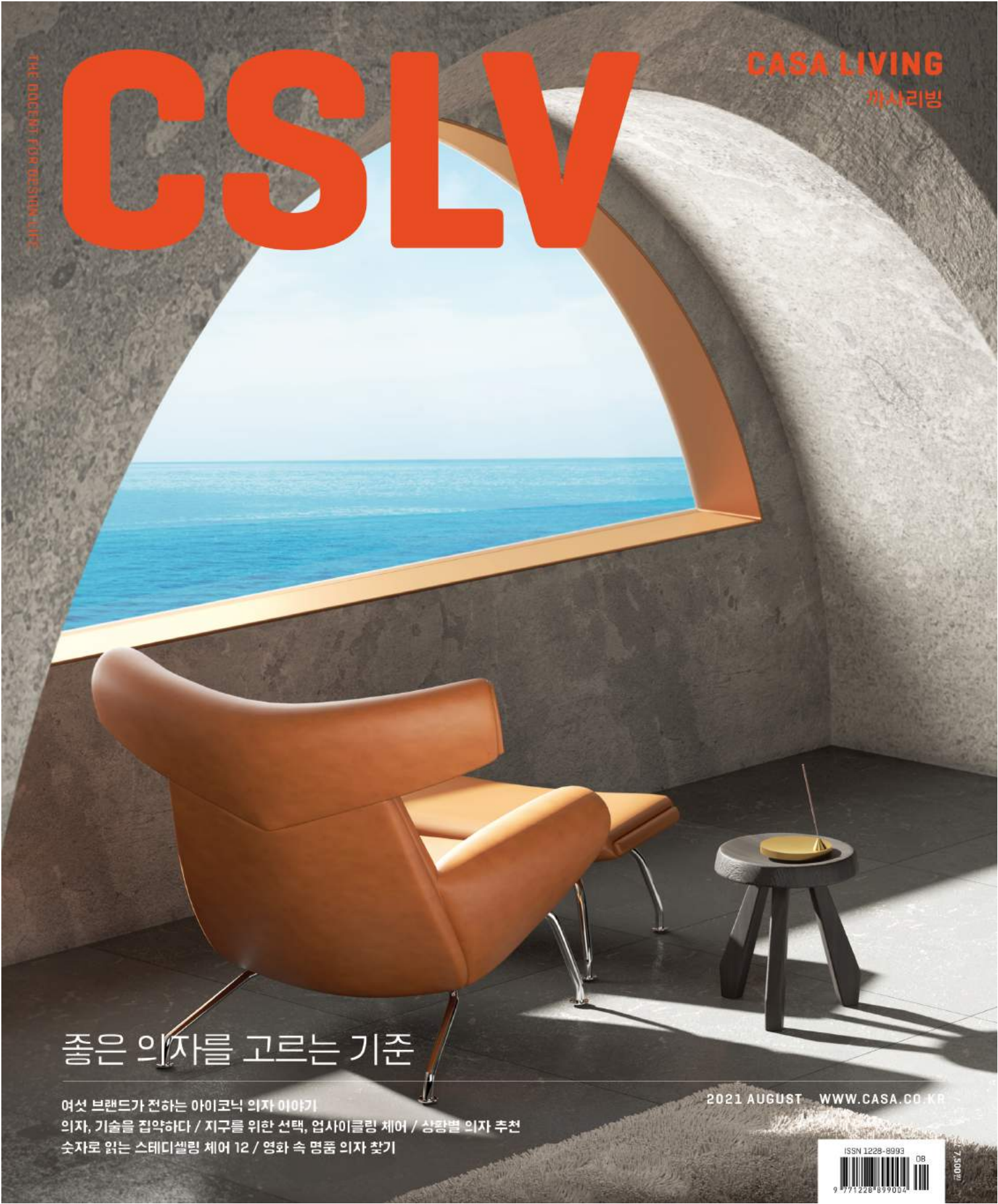


THE DESIGN FOR DESIGN LIFE

# CSLV

CASA LIVING  
까사리빙



## 좋은 의자를 고르는 기준

여섯 브랜드가 전하는 아이코닉 의자 이야기  
의자, 기술을 집약하다 / 지구를 위한 선택, 업사이클링 체어 / 상향별 의자 추천  
숫자로 읽는 스테디셀링 체어 12 / 영화 속 명품 의자 찾기

2021 AUGUST WWW.CASA.CO.KR



7,500원

WORLD

## 모더니즘과 전통 건축의 만남 지중해의 자연 매력을 품은 집

지중해 에머랄드빛 바다를 품고 있는 스페인 마요르카섬. 아름다운 풍경과 연중 온화한 기후 그리고 전통 색채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이곳에 슬로바키아 출신의 젊은 건축가 집단이 만든 모던 주택 한 채가 들어섰다.

에디터 겸 사진은 올 이종민

포토그래피 토메우 카니야스 모리게스  
(Toméu Canyellas Moragas)(Photofyer)



아름다운 지중해의 수영장이 펼쳐지는 전망을 볼 수 있는 주변 대형 테라스를 통한 자연치는 슬라이딩 우드 플랫폼 도어 개폐에 따라 실내와 실외 일부가 되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 1 지방 전통의 천연색으로 마감한 벽면의 자연미를 살리기 위해 오크 원목을 선택해 테이들과 벤치를 제작했다.
- 2 마요르카섬 전통 건축 재료인 석재로 마감한 건물 외벽과 지중해 빛깔을 품 달은 푸른 인피나트 풀의 조화가 평화로운 주택 풍경.





수령장이 바라다보이는 창가에 별도로 마련해놓은 다이너닝 룸의 한쪽 벽면은 외벽과 같은 석재로 마감해 실내와 외부가 연결되는 느낌을 강조했다. 오크 원목 테이블은 현지 목수가 공간에 맞게 제작했고, 의자는 덴마크 가구 업체 제품이다.



대형 슬러드 우드로 만든 아일랜드 조리대가 무게 중심을 잡고 있는 오픈 키친. 벽면의 볼록한 시스템 주방 가구는 아일랜드와 같은 오크 우드로 제작했으며 가운데 수납공간은 스타인리스 스틸로 마감해 모던한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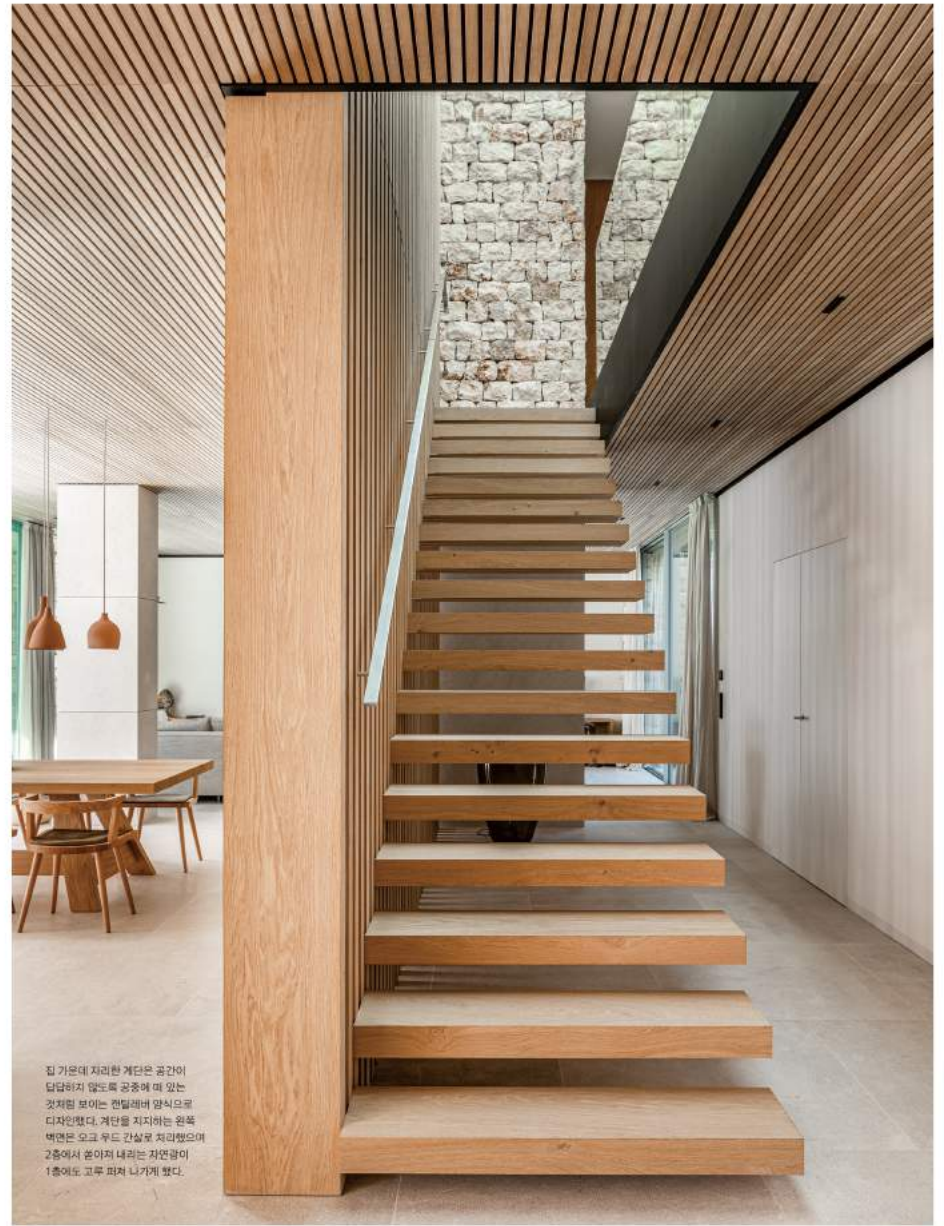
#### 이방인의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일군 집

동유럽을 무대로 활동하는 슬로바키아 건축 사무소 비프(BEUF Architekti)는 최근 그 영역을 지중해로 넓히는 뜻깊은 모험에 도전했다. "예전에 저희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 마친 클라이언트가 스페인 마요르카섬에 주택을 지어달라는 의뢰를 해왔습니다." 건축가 라도 부진카이(Rado Buzinkay)는 클라이언트의 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낯선 곳에 집을 짓는 도전장을 내밀었고, 그렇게 호기롭게 당도한 현장에서 상상도 못한 난관에 맞닥뜨렸다. "마요르카 곳곳을 둘러보니 변화한 곳이나 교외 모두 이롭답게 느껴진 것은 이 지방 특유의 전통 석조 가옥이 건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미 클라이언트의 모던한 라이프스타일 및 디자인 취향을 간파하고 있었던 건축가 라도는 내심 미니멀한 모던 콘크리트 건축을 예상하고 있었던 바, "현지를 방문하고 나서 우리 팀은 완전히 초기화 모드가 되었어요. 그리고 매주 매일, 현지로 건너가 마요르카 전통 석조 건축에 대해 배웠습니다." 모르타르 혹은 시멘트 같은 접착제 없이 석재를 쌓아 구조물을 완성하는 전통 건축법인 페드라 엔 세카(Pedra en Sec)은 현지에서 채굴하는 돌을 사용하기에 주변 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고운의 강렬한 햇빛, 습한 바다를 마주한 자중에 기후에서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준다.



1 마요르카 전통 석재와 주택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다이너닝 룸의 핀란드 조명은 도예가의 손길을 빌려 페라포르토 주문 제작을 했다. 그중 핀란드는 슬로바키아 도예가가 운영하는 에스아이엘아이디(Li Ceramics)에서 만들었다.

양쪽으로 눈부신 지중해 바다 전망과 푸른 소나무가 둘러싼 정원 전망을 지닌 커실은 중성적인 내추얼  
 등으로 연출해 외부 환경이 주인공이 되도록 미니멀하게 꾸민 것이 특징이다. 인테리어까지 동일한  
 건축가는 공간 비율에 맞는 안락한 소파를 엄선했고, TV 아래 높은 긴 오픈 콘솔 사이드보드는 지역  
 목수 장인을 통해 수공예로 제작했다. 소파 네오 월(Neo Wall)은 리빙 디번(Living Divan), 트리스(Trio)  
 커피 테이블은 플렉스폼(Flexform) 제품이다.



집 가운데 자리한 계단은 공간이  
 답답하지 않도록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컨틸레너 양식으로  
 디자인했다. 계단을 지지하는 왼쪽  
 벽면은 오크 무드 간살로 처리했으며  
 2층에서 올라와 내리는 장면들이  
 1층에도 고루 퍼져 나가게 했다.

전면 통창을 통해 바다 풍경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마스터 룸 네 자리란 욕실은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는 휴식처가 되도록 디자인했다. 외벽과 같은 식재로 마감해 실내에 있는 듯한 느낌을 연출했고 욕조는 그 안에 누워 있을 때 최고의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했다. 욕조는 이탈리아 안토니오 루피(Antonio Lupi) 제품.



**전통과 모던의 절충으로 탄생한 풀 하우스**

콘크리트 건물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건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비프 건축 사무소 팀의 현지 답사와 전통 기옥 공부가 거듭되면서 콘크리트에 대한 집착은 사라졌다. "현지에서 지내며 지중해 기후에는 석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여름엔 서늘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해주고 반대로 겨울에는 온기를 축적하죠." 건축가는 스틸 프레임 구조에 벽돌과 석재를 채워 넣는 절충안으로 집을 지었고, 특히 외벽은 지역 전통 기술자의 도움을 통해 돌을 쌓아 완성했다. 돌 하나하나를 해머로 다듬어가며 끼워 맞추는 작업에는 건축 사무소 팀도 동참했는데, 이때 장인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돌 모양과 이를 쌓았을 때 느낌을 제시하기 위해 집 정면 일부에 샘플 시공을 한다는 것이 결국 전체를 완성해버린 에피소드도 있었다.

"전통미를 살리면서 현대적인 기술로 그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돌을 쌓아 만든 외벽과 벽돌 벽 사이에 8cm 두께의 단열재를 넣어 열교 현상을 방지하고, 겨울에는 난방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 했습니다." 열으로 긴 직사각형의 2층 집은 미니멀한 디자인에 인피니트 풀까지 갖추는 등 모던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곳이지만 미요르카라는 지역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통 석조 기옥의 연장선에 다름없다. "오히려 전형적인 석조 주택으로 봐준다면 더없이 기쁠 거 같아요." 3년을 꼬박 이 집을 짓는 데 몰두한 건축가의 소회다.



**나무와 돌, 집 안팎을 아우른다**

건축적인 측면에서 돌이 주요 마감재였다면 인테리어에서 주 소재인 목재다. 건축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집 안에 끌어들이고 실내외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석재 빛깔과 유사한 오크 우드를 선택했다. 그리고 현지 목공예가의 도움을 받아 오크 우드로 계단을 비롯해 아일랜드, 수납장, 식탁, 캐비닛 등 가구 일체를 맞춤 제작을 했는데, 이들은 모두 수직선을 강조한 심플한 조형미를 띠며 모던하고 세련된 공간을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 집은 전통적 재료와 기술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 건축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각 재료는 심미적으로는 물론 기능적으로도 특정 역할을 담당하죠. 그중 천정과 플딩 슬라이딩 도어, 계단부 백면 등 나무로 마감한 부분을 보면 모두 우드 슬랫(Slat)을 적극 활용했어요. 돌통과 채광에 효과적이거든요." 천장에 적용한 우드 슬랫은 아세틸화 처리를 해 습기에 강하고 변형이 없는 아코아 목재로 만들었는데 이는 실내를 쾌적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선택. 내추럴 톤과 텍스처로 일관한 안정적인 실내에 있다 보면 커다란 창문 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절로 시선이 고정된다. 1층 주방과 거실에서는 인피니트 풀과 지중해 수평선이 교차되는 장면을 볼 수 있으며 2층 욕실에서는 소나무 사이로 내려다보이는 도심 전경이 무척이나 흥미롭게 다가온다.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를 매 순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집. 건축주와 건축가 모두 지중해 섬에 집을 흥미롭게 지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건축·인테리어 디자인 BEEF Architekt(www.beef.sk)



- 1 내추럴 색상의 리넨 침구와 오크 우드 간살 문물 단 수납장의 조합으로 평안한 분위기가 감도는 침실. 바다 빛깔로 물든 리넨 블라우징과 체크 조형 보편트 브로카스(Brocas)의 '요니 미디엄' 편면트의 푸른색 가죽 스토럼이 이곳이 지중해를 마주한 집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 2 마루 바닥과 플렉시블 도어, 사이드보드, 외자 등 나무 소재로 된 모든 것을 같은 색감으로 맞춰 단아한 자연미를 연출한 침실. 코너에 놓은 의자는 한스 베크네르가 디자인한 칼 한센&선의 워시본 체어.